

‘핵문제’ 본질 파헤친 책출간 활발

외국논문 의존벗고 국내저술 급증... 최근 관심반영 10여종 선봬

한반도의 냉전종식을 여는 획기적인 비핵화 선언이 발표된 데 이어 이에 따른 핵사찰 등 평화정착의 단계적인 절차들이 연일 발표되는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핵’을 미끼로 한 미국의 북한폭격시나리오가 공공연히 나돌면서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핵 폐기물처리장 설립을 둘러싸고 해당지역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잇따르면서 ‘반핵운동’의 열기가 고조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핵문제’를 둘러싼 갖가지의 용어와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한반도 전역에서 ‘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듯하다. 이같은 갖가지의 의문과 궁금증을 반증하듯 핵개발, 핵무기, 핵사찰, 핵발전소, 핵폐기물 등 이들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반핵운동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단행본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어 관심있는 독자들의 궁금증에 답해주고 있다.

한반도 사례 연구한 이론서

한반도의 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 핵무기 문제와 핵발전소와의 상호관련성, 핵폐기물과 환경문제 등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핵문제 관련 현안들에 대해 가장 명쾌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는 책으로 먼저 「한국에서의 핵문제·핵인식론」(김승국, 일빛)을 꼽을 수 있다. 현재 한겨레신문의 기자로 있으며 반핵평화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최근까지 나온 관련자료 및 여태까지 국내에 소개된 관련서적들을 토대로 반핵·통일운동의 관점에서 핵문제 일반, 특히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이 책은 80년대 후반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반핵-핵위기의 구조와 한반도」(이영희·임재경 엮음, 창작과비평사) 「반전반핵평화통일론」(이정식·B 커밍스 외, 형상사) 「핵전쟁의 위협」(알바위르달, 동광) 「核과 한반도-反核운동의 논리」(고승우 외, 아침) 등과 동일맥락에 놓이면서도 이들이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우려하는 외국 핵문제전문가들의 논문에 많이 기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 활동가에 의해 씌어진 총체적인 핵인식론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핵 시대의 전쟁과 평화」 「핵 시대의 과학과 환경」 「핵과 한반도」 등 모두 3부로 구성, 세계 핵무기의 패권을 쥐고 이의 관리·통제를 집중시켜가고 있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국의 핵산업·군산복합체의 경제침탈 등의 구체적 양상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한편,

정치·사회적으로 핵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용어와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같이 다양한 의문과 궁금증을 반증하듯 핵개발 핵문제 핵에너지 핵폐기물 등 이들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반핵운동의 성과를 묶은 단행본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어 관심있는 독자들의 궁금증에 답해주고 있다.

한미간 핵정책의 허구성, 걸프전 이후의 북한 대한 핵사찰 압력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위협스럽게 나돌고 있는 ‘북한핵시설 폭격 가상시나리오’의 배후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핵개발이 핵사찰의 이유’라는 미국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남북한의 동시핵사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고리로 삼아 주한미군의 철수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해 반핵평화운동의 진로를 신중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영선(서울대 외교학과)교수가 최근 펴낸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나남)는 군사 및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기존의 강대국 중심의 질서가 허물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핵확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문제를 세계적·역사적 시각에서 조명하면서, 한반도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핵무기의 세계적 집중과 확산」 「핵기술의 세계적 확산」 「약소국의 핵화와 세계질서」 「한·미 군사관계의 새로운 방향 모색」 등 10개의 장에서 저자는 한반도의 핵무기문제를 국제체제, 남북한 분단체제, 국내체제의 복합적인 분석틀 속에서 입체적으로 조명, 탈냉전의 세계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핵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살핀다.

독특한 관점의 반핵운동 저서들

이와함께 최근 나온 「위험한 에너지 핵」(황상규, 거름) 「꼭 원자력이야만 하는가」(다케나이 미즈오, 광주) 「핵, 그 사실과 논리」(大友詔雄 지음, 광주) 등의 책은 ‘핵에너지’를



군사적으로 이용한 핵무기만이 인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와 같은 평화적 이용에도 마찬가지로의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핵개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경제·사회·군사·과학·기술의 제 측면을 총체적으로 체계화하여 핵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있다. 공해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서 있는 황상규씨가 공추련의 여태까지의 반핵운동 성과를 집약해서 엮은 책 「위험한 에너지 핵」은 핵발전소의 안정성에 대한 찬반논쟁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정부와 한전당국이 ‘무조건적인 안정성’만을 내세우며 ‘핵 비밀주의’도 일관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푸른산에서 최근 내용은 두 권의 책 「누가 존웨인을 죽였는가」와 「위험한 이야기」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붕괴사건을 논픽션으로 엮은 「체르노빌의 아이들」로 국내독자들과도 친숙한 일본의 유명한 반핵운동가 히로세 다카시의 저서를 옮긴 것으로, 방사능의 끔찍한 후유증을 살피으로써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핵발전의 현재와 미래의 위험한 상황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이중 「누가 존웨인을...」은 헐리우드 스타들의 10명중 4명이 암으로 사망한 기이한 통계를 바탕으로 헐리우드, 서부극스타, 미국 서부, 핵실험의 상관관계를 파헤친 논픽션물. 저자는 이 책에서 미국의 네바다, 유타, 아리조나 3개주에서 실시됐던 1951년 이후의 대기핵 실험과 그것이 남겨놓은 죽음의 재, 그리고 수십만의 영화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암’ 발생과 관계를 밝혀내 큰 화제를 불러모았었다.

앞서의 책들이 대체로 방사능에 의한 환경 파괴, 인간생명의 위협 등을 알림으로써 원자

력발전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독일의 반핵운동가 로버트 욥크가 쓴 「원자력 제국」(따님)은 원자력발전이 초래하는 사회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독특한 시각의 저서다. 욥크는 거대과학, 거대기술의 전형이라 할 원자력발전이 보편화되어 에너지공급이 증대하면 소비 역시 증대, 에너지가 사회복지의 필수로 자리잡게 되면 그 사회는 핵발전이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내다본다. 그런 사회에서는 원전의 기술적·사회적 안전을 위해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해지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비로소 눈뜨기 시작한 ‘핵’에의 관심

80년대말, 세계핵전쟁방지구제의사회가 펴낸 「핵전쟁과 인류」(미래사)의 서문에서 저자들은 “남한에는 하나의 위대한 미신이 있다. 이 나라 국민 모두가 그것을 신봉하고, 국가가 그 신앙을 보호·지원한다는 뜻에서 국가적 미신이라 할 수 있다. 그 미신적 신앙은 다음아닌 핵에너지와 핵무기에 대한 맹목적 숭배다”며 당시 우리의 핵문제에 대한 무감각·무지를 꼬집은 적이 있다. 이렇듯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면서도 핵무기문제와 반핵운동에 대한 국내 필자들의 저술이 지금까지 드물었던 게 사실이다. 최근들어 국내 저자들에 의해 비로소 선보이기 시작한 이들 저서들은 우리의 핵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위와 반핵운동의 성과를 반증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 정혜옥 기자